

ACC, 문화예술 '등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ACC는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지역 출신 작가나 상주 작가들에게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ACC의 지역 작가 연계 전시 및 작품들을 소개한다.

▶어반스케치스광주 작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래)과 현장 스케치 시연



지역과 호흡하고 시민과 더 가까이...



◀ACC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에 전시된 한갑수 도예가의 '고슴도치' 작품(오른쪽)과 작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전남 출신 한갑수 도예가, 대나무 정원에 '고슴도치' 작품 진열
ACC는 최근 지역 작가의 작품을 활용해 휴게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문화정보원 도서관 내 대나무 정원을 시민들이 야외 전시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설했고, 정원의 대나무를 보강 식재하고, 지난 달부터 지역 작가의 작품 4점을 방문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전시 작품은 무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갑수 도예가의 작품 '도치부자', '품1', '품2', '품3'이다. 한 도예가는 고슴도치를 주제로 유쾌하고 해학적이거나, 가족애를 담은 친근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오묘조밀 풀어져 있는 한 도예가의 작품들은 오는 6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
◇ACCx어반스케치스광주 'ACC에 반한 스케치' 전시 협력
지역사회 및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CC는 최근 도시 풍경을 그리는 활동

단체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어반스케치스광주'와 함께 오는 7월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어반스케치스광주' 회원 40여 명은 지난 2월 ACC를 방문해 문화전당을 배경으로 한 첫 스케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3월24일에는 ACC와 '어반스케치스광주'가 함께 어반스케치스 작가를 초청, 현장 스케치 시연과 교육 등 워크숍을 진행했다.
오는 6월20일부터 7월7일까지 대나무 정원에서는 'ACC에 반한 스케치'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린다. 전시에서는 '어반스케치스광주' 회원들이 ACC를 스케치한 그림과 광주 동구의 오래된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담은 그림 등 200여점을 선보인다.
◇광주·전남 작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전시 지속 추진
ACC는 2022년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전시 연계 공모 사업으로 'ACC 지역작가 미디어아트 공모'를 개최했다. 전시를 통해 임용현 작가

(광주 활동)의 작품 '화석이 될 수 없어'와 이조흠 작가(광주 활동)의 작품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이 미디어파사드에 상영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예술극장 로비에 서 지역 작가 공모 전시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를 통해 유지원 작가(광주 활동)의 '판타스마고리아'와 이은정 작가(곡성 활동)의 '모두의 나무'가 관객과 만났다.
지난해 9-12월 진행된 ACC 인기 전시 '일상침화'에도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김함기 작가(신안 출생)의 '귀로', 천경자 작가(고흥 출생)의 '그라나다의 도서관장', 오지호 작가(화산 출생)의 '무등산폭이 보이는 구월봉경', 임진순 작가(광주 활동)의 '가을과 여인' 등 지역과 연고를 맺고 있는 유명 작품을 전시해 의미를 더했다.
또 지난해 열린 야외전시 '하늬풍경'에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담양 출생·광주 활동)의 작품 '형상 밖으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서 다'를 선보였다. 아울러 지난 2월 종료된 '가이아의 도시' 전시에도 김지아 작가(광주 활동)의 작품 '휴식의 기술 ver. 도시 농부' 작품을 공개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시민들이 ACC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자리한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높이며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어버이날, 국악으로 전하는 선물 꾸러미

오늘 국립민속국악원-시립창극단 기획공연

광주예술의전당은 8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에서 '2024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을 펼친다.

이번 기획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의 지역순회 프로그램으로 광주시립창극단과 상호 협력해 진행한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을 대표하는 단막 창극, 민요 연곡, 비나리의 성악 작품과 서울 곳곳에서 파생한 민속춤 및 기악 산조합주 총 다섯 개 작품을 준비했다.

관객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비나리'가 박진감 있는 '설장구 가락'과 함께 서막을 연다.

다음으로 국악기의 독특한 음색과 장단의 멋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산조합주'와 고단한 삶의 짐을 어우르는 '대



신무'가 관객들과 만난다.
민요연곡 '사철가·휘여능청·달타령'은 익숙한 선율로 흥겨움을 더하며, 마지막으로 단막 창극 '적벽'은 판소리 적벽가의 진수를 모듬북과 함께 압축해 보여준다. <사진>
한편 다음달 22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국립민속국악원을 방문해 토요국악나들이 공연을 진행한다. /최명진 기자



섬 지역 학교와 함께 나주박물관 역사여행

신안군 자은초 등 박물관 교육 시범운영

국립나주박물관이 섬 지역 학교와 함께하는 '박물관 역사 여행'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전남도 섬 지역 학교는 74개 섬 총 11개교가 있다. 섬 학교 학생들은 지역 특성상 이동이 쉽지 않아 문화체험 향유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

이에 나주박물관은 전남도 거점 국립박물관으로서 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문화 참여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 운영에 나섰다.

교육은 고대 영산강 유역 역사에 관한 것으로, 나주박물관이 체험에 필요한 자료 꾸러미를 해당 학교에 우편으로 발송

중 회망학교 5곳(초등학교 3곳·중학교 2곳)이 선정돼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은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평가와 보완 단계를 거쳐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전남 모든 섬 지역 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8-19일 첫 시범운영 교육에 참여한 학교는 신안군 자은초 자은초등학교다.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 '옛사람들의 부엌이야기' 등 3개 교육 프로그램에 전교생 38명 모두가 참여했다.

4학년 한 어린이는 "박물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의 옛 역사를 만나볼 수 있어 좋았고, 체험하면서 역사를 배우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명진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NEW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사양	사양	사양	사양	사양
샤프트	샤프트	샤프트	샤프트	샤프트
그립	그립	그립	그립	그립
소재	소재	소재	소재	소재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